갈등관리 현장 행보 '반쪽짜리' 전락하나

그제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갈등관리' 기조 설정
강정·월정 찾아 해결방안 논의… 2공항 일정은 없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번주 도정기조를 '갈등관리'로 설정해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도내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일정은 일정에서 배제되면서 반쪽짜리 행보라는 지적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8일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번주 도정 기조를 갈등관리로 설정하고 각 실국에서 소관 갈등 사항을 확인,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오 지사는 갈등현안 해결 일환으로 지난 18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관을 찾아 강정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6개 협약과제 이행방안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1일에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갈등이 첨예한 제주시 월정마을을 방문해 도민 소통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오 지사가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는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갈등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 지사가 갈등관리를 강조하면서도 도내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일정은 잡지 않아 의문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오 지사가 현재 진행형인 제2공항과 같은 민감한 갈등 사항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추측도 나온다.

강원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일정 논의와 관련해)제주도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민감한 사안이라서 일정을 잡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제2공항은 국가사업이고 아직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일정은) 보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오 지사의 갈등관리 기조 설정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공공갈등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갈등 진단을 추진한 뒤 중점 관리에 나선다. 갈등 진단은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갈등 예상 및 발생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4대 항목·14개 분류·36개 세부 항목별 진단 후 배점에 따라 등급별(1~4등급) 상시 모니터링과 책임 관리가 이뤄진다. 이태윤기자

위성곤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낙점

더불어민주당내 입법, 정책과제 수립·조율 담당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사진)이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보직인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낙점됐다.

위 의원은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와 함께 당 입법정책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게 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위 의원을 신임 원내정책수석부대에로 선임했다.

재선인 위 의원은 지난 3월 박원내대표 취임 뒤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국회=부미현기자

위성곤 의원에 제2공항 용역 약식 보고

국토교통부 21일 국회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게 약식 보고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 결과, 위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이달 초 마무리 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연구용역과 관련해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번 면담은 위 의원이 요청해 성사됐다.

국토부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요약 내용에 대해 제주 지역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고,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해소방안 검토 및 방향성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지난달 최종 보고회를 거쳤고, 보완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다시 작성해 환경부와 재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도 성과평가 '양호' 청정 분야서 높은 점수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전체평점 총 85점으로 '양호' 점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성과평점은 85점으로 전년도(2020년) 84.6점 대비 0.4점 상승했다. 전체 37개 지표 평가에서는 우수 17·양호 15·보통 5개로 조사됐다. 양호 등급 이상인 성과지표 비율은 87%로 전년도 79%보다 8%포인트 늘었다.

이중 청정제주 분야가 8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분야 85.9점, 지방분권 분야 80.7점 등으로 각각 평가됐다.

주요 성과로는 ▷사회협약위 갈등관리 기반 구축 ▷감사위원회 자율성 강화 등 자치역량 제고 ▷수출호조(지자체 2위), 관광산업 고도화(빅데이터) 등이 꼽혔다.

또 ▷영세업체 경영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센터 취업실적 향상(34%↑) ▷2030 폐기물 미래비전 수립 등 고용·환경 정책 개선 등도 높게 평가받았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윤석열 정부 제주 현안 챙길 것"

어제 국회서 국민의힘-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오영훈 지사 "제주 물가 심각… 물류문제 해결 시급"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편성에 있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도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권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주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동시에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제주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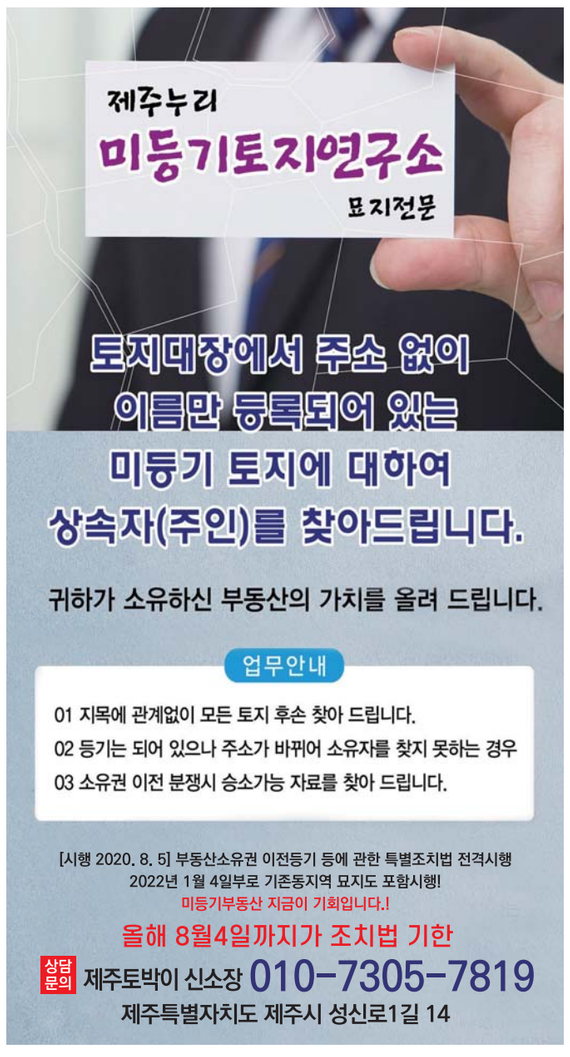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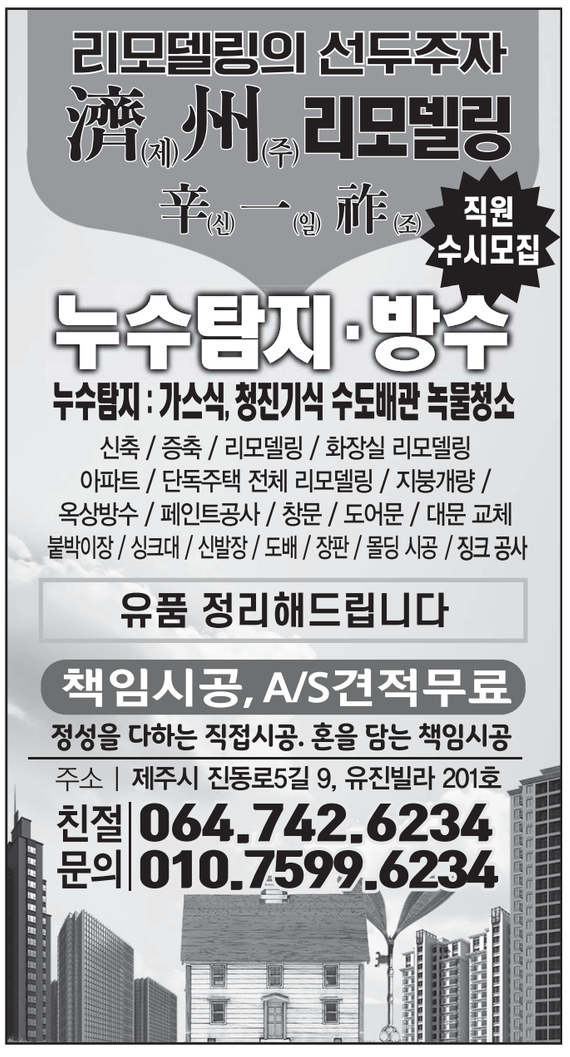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IMF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크게 오르는 주요 원인으로 물류체계에 문제가 있다. 오늘 건의드리는 핵심 주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지사는 "특히 제주도는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이번 예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는 국민의힘에 2023년도 주요 국비사업 예산 반영과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관련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토 지 구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조 건
① 전원주택용 부지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③ 계획관리지역
베네건축 베네하우스
문의: ☎ 064-723-1105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 환우모집
아름다운 동행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는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교육지원사업, 심리정서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기금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며 후원사업과 문화사업, 홍보사업 등의 연계사업 등으로 기부문화의 중심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협회가 함께 동행 할 것입니다.
대상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을 진단받은 만20세 이하의 환우
신청방법 사무국 내방 상담 후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병원비 혹은 약제비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문의 및 신청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TEL(064)752-3300
e-mail:jejubh16@daum.net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매촌동길 89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